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1 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13 년 7 월 20 일 오후 5:00

장소: Hilton Hawaiian Village, Honolulu, HI

사회: 강용진 총회장/기록: 김선미 사무총장/정족수: 59 명

1. 회장인사 및 개회선언

- 1) 강용진 총회장의 인사
- 2) 강용진 총회장의 개회 선언 (5 시 50 분)

2. 국민의례: 애국가 1 절 제창

3. 회순 통과

- 1) 강용진 총회장이 참석자 전원의 거수동의로 회순을 채택하다.
- 2) 홍태명 동의/장동구 재청

4. 전 회의록 낭독

- 1) 학술대회 지 32-33 쪽에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을 낭독없이 그대로 받기를 요청하고 통과시키다.
- 2) 최미영 동의/ 강남옥 재청

5. 협의회 사업 보고

- 1) 강용진 총회장이 2012 년 8 월부터 2013 년 6 월까지 16 대 사업보고를 하다.
 - 2012 년 9 월 1 일 있었던 지역협의회장들의 비공식모임을 통해 16 대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다
 - 2013 년 1 월 11-13 일까지 아틀란타에서 지역협의회장및 임원 연석회의가 있었다.
 - 2013 년 3 월 15-17 일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 총 2263 명 응시하다.

6. 감사보고

- 1) 심형란 감사가 2012년 7월 31일-2012년 8월 31일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낭독하다.
- 2)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미시간 지역에서 친구 두 회장이 만나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음을 보고하다.
- 3) 심형란 감사가 2012년 9월 1일-2013년 6월 30일까지의 행정감사 결과 필요한 모든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협의회 기금이 은행에 잘 적립되어있다고 보고하다.
- 4) 이민노 전 총회장이 재무보고를 통해 보고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다.
- 5) 홍태명 이사가 8월 31일로 전 회계에 대한 회계연도는 중간 결산을 위한 업무감사만 했다고 설명하다.
- 6) 함혜란 동의/ 신현주 재청

7. 수정예산 보고

- 1) 송지은 재무가 2012년 9월 1일-2013년 8월 31일까지의 수정 예산 보고를 하다.
 - 전 회계년도 이월금 \$30,000.00, 교과부 지원금 \$30,000.00, 학술대회 수입 \$130,000.00,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70,000.00, 협의회비 \$25,000.00, 이사비 \$10,000.00 기타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수입 \$441,000.00을 보고하다.
 - 학술대회비용 \$280,000.00, 집중연수 \$5,000.00, SAT II 한국어비용 \$12,000.00, 지역협의회장 연석회의 비용 \$30,000.00, 웹유지비 \$5,000.00 등을 포함한 총 지출액 \$441,000.00을 보고하다.
 - 이 수정예산을 그대로 받기로 하다.
- 2) 이승민 동의/오준석 재청

8. 재무보고

- 1) 송지은 재무가 재무 보고를 하다.
- 2) 이민노 전 총회장이 “중간 결산에서도 학술대회에 대한 결산이 없다, 15대 회장이 넘겨주지 않았거나 16대의 행정착오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설명 요청한다,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 권리가” 발언하다.

- 3) 홍태명 이사가 “실제 1012년 7월 1일-8월 31일 결산보고서 만들어졌고 준비됐다, 이번에 감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줄 알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하다.
- 4) 이민노 전 총회장이 “누구보다 홍태명 이사가 잘 알고 있는 줄 안다. 총회에서는 모든 것을 유인물로 받아서 알아야 한다”고 발언하다.
- 5) 홍태명 이사가 “내 방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카피해서 배부하겠다.”고 하다.
- 6) 이민노 전 총회장이 “이런 것은 이사회 소관이다.”라고 발언하다.
- 7) 홍태명 이사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카피해서 배분하겠다.”고 답변하다.
- 8) 동의/재청자 기록 없음

9. 하반기 예산 보고

- 1) 송지은 재무가 2013년 9월 1일-2014년 8월 31일까지의 예산을 발표하다.
 - 협의회비 \$25,000.00, 이사회비 \$10,000.00, 학술대회 수입 \$170,000.00, 교과부 지원 \$30,000.00, 재외동포재단 지원 \$70,000.00, 기타 지원금 포함 총 \$424,000.00 수입
 - 학술대회비용 \$270,000.00, 집중연수 \$5,000.00, SAT II 한국어 \$12,000.00, 웹 도메인 관리비 \$7,000.00, 연석회의 비용 \$30,000.00, 기타 행사비 및 행정경비 포함 총 지출 \$424,000.00 총 지출
- 2) 김윤희 동의/이승민 재청

10. 이사회 보고

- 1) 3년 임기를 마치는 이광호 이사장이 인사하다.
- 2) 지명위원회 (위원장 신현주)에서 김대영, 남일, 안승훈 3명의 이사를 인준받았음을 보고하다.
- 3) 동남부, 서북미, 플로리다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 예정임을 설명하다.
- 4)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책임자 2명 결정하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서명이 있다. 방정웅 평가위원장과 담당 문윤희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전문위원을 구성기로 함을 보고하다.

- 5) 회칙위원회 발동: 회칙 개정한 지 10년 정도, 올해는 이사회 통과 목적으로 활동했으나 이사회에서 토론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류했다. 최미영 회칙위원장이 내년엔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보고하다.
- 6) 12대 이사장에 장동구 부이사장 단독 입후보, 무기명 투표 과반수 이상 획득 선출됨을 보고하다.
- 7) 장동구 새 이사장 당선자 인사: 12대 이사장으로 여러분들의 큰 협력을 바란다고 인사하다.
- 8) 2007년 창립된 중남부 협의회인 인디애나폴리스가 차기 정기총회 개최지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하다.

11. 기타 토의사항

- 1) 방정웅 자문이사가 “회칙을 임원들이나 이사회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 중에서 낙스의 임원은 학교를 대표할 수 없으면 자동 자격 상실된다”고 발언하다.
- 2) 이광호 이사장이 방정웅 자문이사의 발언에 대해 “지금 질문은 집행부 임원에 대한 문제이다. 어제 이사회에서도 의논한 바 있다. 회칙위원회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낙스가 비영리단체로 전문인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낙스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왔다. 3년 전부터 잣대를 재어서 어긋나면 못하게 해 왔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기 동안 일하게 하고 다음에는 적법한 사람을 영입하자.”라고 발언하다.
- 3) 방정웅 자문이사가 “1년 회기가 지나갔다. 2013년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는 새롭게 회칙에 맞는 임원조직이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장이 인지하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 4) 이민노 전 총회장이 “방정웅 이사 말 맞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잘 지켜지지 않았다. 14, 15대에서도 대표가 아닌 사람들이 임원으로 일했다. 회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선출직 이사도 다 포함된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여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다. 어떤 부분은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강회장이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임명직은 회장이 알아서 했다. 전례적으로 다 그렇게 해 왔다. 법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 선출이사 중에서도 상당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굳이 방정웅 이사가 왜 그런 의견을 내고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발언하다.

- 5) 김윤희 남서부 지역협회장이 “선출직은 부회장까지 단체회원 등, 명시되어 있는데 임명직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회칙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6) 이민노 전 총회장이 “꼭 학교대표가 아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라고 본다. 형평이 없다. 이사장이 적용할 때 모든 것을 공정하게 적용하라.”고 발언하다.
- 7) 강용진 총회장이 “관례대로 지출했다.”고 답변하다.
- 8) 이민노 전 총회장이 “이사장이 답변해라”고 발언하다.
- 9) 이광호 이사장이 “이사장의 업무에 한계가 있다. 이사장이 임명한 감사가 감사를 한다. 그러나 의문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부탁할 수 있다. 이민노 전 총회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하다.
- 10) 강남옥 부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강남옥 부회장이 “이 문제는 이사회에서 다루어지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간의 정황을 모르는 총회 참석자들에게 갑작스런 이야기의 전말을 다 설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 건은 여기서 접고 다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전 총회장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만 하고, 이광호 이사장은 예, 아니오 식으로만 답변하고 넘어가자”고 발언하다.
- 11) 손창현 전 총회장이 “모의고사 평가위원장은 수고비를 받느냐?”고 질문하다.
- 12) 이민노 전 총회장이 “SAT II 평가 비용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13) 강용진 총회장 “다음에 정식으로 토의할 기회를 갖기로 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다.
- 14) 명계웅 중서부 지역협회장이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12. 폐회

- 1) 강용진 총회장이 임회원들에게 폐회를 해도 되겠느냐고 질문하다.
- 2) 한광호 동중부지역협의회장이 PPT 내용으로 설명된 총회 자료를 적어도 지역협회장들에게 보내서 기록으로 남기라고 요청하다.
- 3) 강용진 총회장이 한광호 동중부지역협의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다.
- 4) 폐회에 대해 심용휴 동의 이민노 재청하다.

제 1 조 :

제 2 조 :

제 3 조 :

제 4 조 :